■보조사상硏 '대혜서장연구' 발표회

화두는 '개인의 내면화된 의심' 공안은 '선문답의 객관적 판례'

"공안(公案)과 화두(話頭)는 구별돼야 한다. 화두는 '개인의 내면화된 의심'이고, 깨달음을 실현하는 실천이나 공안은 선문답의 객관적 유산으로 남겨진 '판례'일 뿐이다."

'묵조선(默照禪)의 비판'으로 널리 알려진 대혜종고(大慧宗고 · 1088~1163) 선사의 간화선(看話禪)을 집중 고찰한 세미나에서 보통 같은 의미로 혼용되고 있는 '공안'과 '화두'를 엄밀히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대혜서장(大慧書狀) 연구'를 주제로 2월25~26일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스님) 제2차 선전연구 발표회에서 인경스님(동국대 강사)은 '대혜 간화선의 특질'에서 "화두는 선대(先代)의 고칙(古則)인 공안에 대한 주체적인 자기의심으로, 이 둘은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경스님은 "화두는 깨달음에 나아가기 위한 '방법적 의심'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만약 공안에 의심이 없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선문답 정도로,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의심은 공안이 가지는 개념적 모순이나 논리적으로 회통할 수 없는 갈등에서 비롯되는데 이 갈등구조가 개인에게 내면화되지 않는다면 수행의 한 방식으로써 간화선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 인경스님은 "대혜가 공안과 화두라는 용어를 구별하지는 않았지만 조주(趙州)의 무자(無字)를 '역대 조사와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눈썹을 맞대고 같은 눈으로 보고, 같은 귀로 듣기 위해' 밤낮으로 탐구해야할 문제로 여겼던 것처럼 선문답으로서의 공안과 개인의 내면 속에 의심으로 자리잡은 화두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안은 그 개수를 따지자면 천만가지일 것이지만 이 모든 의심은 하나의 화두로 귀착된다"며 "결국 개인의 내면에 자리잡은 화두는 오직 한 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조사상연구원은 2월 25~26일 〈대혜서장〉 연구발표회를 갖고 간화선을 집중 고찰했다.

이밖에 이날 발표회에서는 △대혜의 묵조선 비판에 대하여(김호귀 · 동국대 강사) △선종사에서의 간화선의 위치(혜원스님 · 동국대 교수) △돈오점수의 수행법과 무자화두 참구법의 관계에 대한 대혜종고와 보조지눌의 견해비교(이병욱 · 고려대 강사)가 발표됐다.

김호귀씨는 "묵조를 향한 대혜의 비판은 지나치게 대혜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에 의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대혜의 묵조선에 대한 '깨달음의 무시' 또는 '깨달음에 대한 착각'이라는 주관적 해석은 묵조비판에 있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묵조선과 간화선의 수행의 차이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공안에 대한 전체화(全體化) 내지는 과정화(過程化), 궁극적인 목교인 깨달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좌선에 대한 내적인 형식 등 중요한 테마가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대혜가 묵조를 겨냥한 비판도 그 근저에는 이같은 여러 요소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간화적 방식으로 묵조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선종사에 있어 간화선이 차지하는 위치를 고찰한 혜원스님은 "대혜의 간화선은 달마의 반야주의적 대승사상에 입각한 선지(禪旨) '벽관(壁觀)'이 그 근저가 된다"고 주장했다. 혜원스님은 "대혜의 '간화선'의 주창은 '달마선'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며 "이렇게 볼 때 간화선은 선종사에 있어서 후기에 나타난 선수(禪修)였지만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 중국 선종의 본질을 한층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병욱씨는 대혜의 선사상과 지눌의 간화선 사상을 비교하며 "대혜의 무자화두참구법과 돈오점수 수행법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선불교 이해에서 보면 조화되기 어렵지만 돈오점수 수행과 간화문 수행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고찰했다. 이씨는 "대혜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무자화두참구법을 주로 말하고 있지만 방편으로 돈오점수 수행법도 제시하고 있다"며 "이 둘의 조화가 대혜의 영향을 받은 지눌 선사상의 주요 과제였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혜초연구 본격화 절실"

가산불교硏 '혜초스님 조명' 세미나

"신라 불교 발전에 생동감과 활력을 불어넣은 위대한 탐험가 '혜초'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연구는 통일신라 불교의 면모를 밝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세계정신을 탐험한 위대한 한국인 혜초'를 주제로 2월27일 중앙박물관에서 혜초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기조강연에 나선 지관스님은 "천 2,3백년 전에 세계를 탐험했던 혜초스님에 대해 외국의 연구성과에 기댈 뿐 본격적인 연구조차 시도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왕오천축국전〉의 판독과 번역 등 혜초스님의 제 방면에 대한 올바른 연구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초와 8세기 신라불교'에서 정병삼 교수(숙명여대)는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못지 않게 주목해야할 부분이 밀교 고승으로서의 혜초의 활동"이며 "혜초는 밀교의 대가들과 나란히 주도적 활동을 펼칠 만큼 밀교 고승의 경지에 이르렀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정교수는 "신라에 귀국하지는 못하였지만 밀교경전 〈천발대교왕경(千鉢大敎王經)〉 등에 대한 연구와 수행은 8세기 신라불교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혜초의 구법행로 검토'에서 김상영교수(중앙승가대)는 최근 혜초스님의 선승(禪僧)이었을 것이라는 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 "혜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중국 · 신라의 밀교사와 관련한 연구는 불교사상사의 중요한 과제에 속하므로 이에대한 본격적 연구는 시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관스님

◇정병삼교수

◇김상영교수

◇여성구씨

또 여성구씨(국민대)는 '입당(入唐)구법승과 입축(入竺)구법승에 대하여'에서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로 떠났던 구법승들의 구도정신은 신라인의 기상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중국과 인도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으며 또한 신라불교를 한국불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기자

"불교는 相生 생태학 지향"

고영섭씨 '연기와 자비의 생태학' 발표

새로운 밀레니엄의 핵심적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생태' 문제에 대한 불교의 관점은 어떤 것일까.

자연에 대한 인간의 '몰이해'와 '무자비'(無慈悲)가 오늘의 생태위기를 불러들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의 생태관은 연기와 자비의 관점 위에서 상생(相生)의 생태학을 지향한다"고 밝힌 논문이 발표됐다.

'생태문학과 생태철학'을 주제로 2월25일 열린 한림대 인문학연구소 제1회 심포지엄에서 고영섭씨(동국대 강사)는 '불교의 생태관-연기와 자비의 생태학'을 통해 "불교의 생태 이해는 인간을 넘어서서 유정지물과 무정지물 전체에 걸치는 연기의 세간과 정보(正報)와 의보(依報)의 상호동일성(上卽)과 상호투영성(上入) 위에서 전개되는 상생의 생태학"이라고 주장했다. 고씨는 "불교적 인간은 끝내 중생세간과 기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불교의 생태관은 뭇삶들의 끊임없는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시선을 열어둠으로써 끝내 불보살의 대비심으로 구제하는 '연기 패러다임'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학술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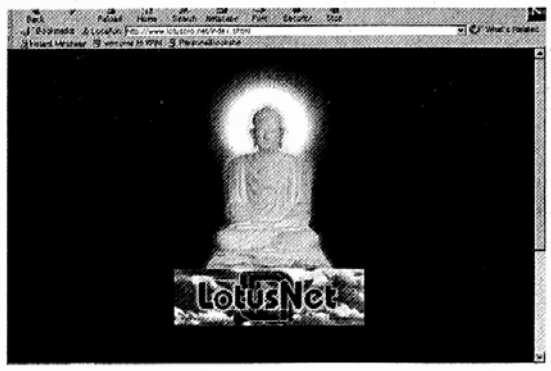
'정토학연구' 창간호

한국정토학회(회장 정태혁) 학술논집 〈정토학 연구〉 창간호가 나왔다.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이번 창간호에는 지난해 '현대사회와 정토신행'을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등이 수록됐다. (02)581-3137

'선무학술논문' 제9집

국제선무학회(회장 김철)는 〈선무학술논집〉 제9집을 최근 펴냈다. △선과 심장(박옥규 · 원광대) △선무수련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노윤구 · 영산대) 등 논문 22편이 수록됐다. (0653)850-6619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로터스넷과 티벳하우스

베트남-티벳불교문화 · 교리비교 틱낙한스님 올 일정 관련 정보 소개

베트남불교와 티벳불교 교리도 비교하고 문화도 익히며, 20세기 서양 불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틱낙한스님과 달라이 라마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 이 사이트들은 바로 '로터스넷(lotusnet)'과 '티벳하우스(tibethouse)'.

로터스넷=베트남 불교계 소식과 불교도서 정보, 불교음악는 물론 베트남어까지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 이 사이트는 베트남 불서 12권의 내용을 요약해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고 책의 표지그림도 그래픽 정보로 보여주고 있다. 90여종의 법어 명상 기타 불교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불교음악이 수록된 테이프 11개도 공개해 이곳을 방문한 네티즌은 인터넷 상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VPS(베트남어 프로그램)를 웹브라우져에 설치해 텍스트정보를 열람하면 베트남어도 공부할 수 있다.

불교전자잡지 〈로터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터스 넷'에는 '불자의 도리' '명상과수행' 등 총 17가지 주제에 대한 담마난다스님(베트남)의 글과 베트남의 전래 불교우화도 열람-로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 7월 15부터 한달간 '프럼빌리지'(프랑스)의 여름수행을 주관하고 9월초순 워싱톤(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틱낙한스님의 1999년도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티벳하우스=티벳정부 산하 문화-학술기구로 인터넷 상에는 뉴욕과 런던 지부등 개설돼 △교육 △박물관 △환경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중 뉴욕지부 '티벳 하우스' 사이트에 개설된 '박물관' 서비스는 18 · 19세기 티벳 동부지역에서 불교 의식에 사용됐던 의구(儀具)의 전시 정보를 비롯해 티벳관련 사진 1백여점을 그래픽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뉴욕지부 '티벳하우스'는 이외에도 14대 달라이 라마의 어록(語錄)을 제공한다. 이중에는 노벨상 수상식('94), 미국기자협회('93), ICT('96)에 참여한 달라이 라마의 연설문을 비롯해 '평화행진 선언문' '〈아시아나우(Aisa Now)〉지와의 인터뷰' 등이 제공되며 열람 · 다운로딩(가져오기)도 가능하다.

티벳관련 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위스덤 출판사'(Wisdom Books, 美)와의 연동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 도서목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출판사를 방문하면 최근 발간된 〈20세기 고승열전〉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티벳인들의 비폭력 독립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밀라레파 기금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 기금은 또 변화를 달성하는데 강력한 매개체로 상징되고 있는 전세계의 젊은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밀라레파 기금이라는 명칭은 11세기께 티벳의 성인(聖人)으로서 시인이자 음악가, 명상 수행가인 제트슨 밀라레파(Jetsun Milarepa)라는 이름에서 유래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로터스넷 http://www.lotuspro.net/index.shtml
티벳하우스 http://quietmountain.com/tibethouse/

건 · 강 · 보 · 조 · 식 · 품 · 허 · 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 · 익수영진고 시판개시

선(仙 · 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추드름(常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에 물[水] · 불[火] · 흙[土] · 쇠[金], 네 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 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 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9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義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랑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 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송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두 종합영양강정(强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 · 솔순 · 솔씨방 · 솔마디 · 송화가루 · 송진 · 송근백피 · 송목피 · 송이버섯 · 백봉령 · 적복령 · 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 · 감초 · 표고버섯 · 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 · 기(氣) · 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종합영양강정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도 체중이 10 kg 이사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종합강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본사제품
솔선식, 효소정액, 익수영진고
(KBS 6시 내고향 99. 1. 28 방영)

솔효소정액
원액 2,800ml
(700ml 4병분량 ,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 선 식
환약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익수영진고
옛날 방법으로 1개월간 은은하게 달이며 600g (한근정도)
최고급 보약중의 보약
정가 ₩1,000,000원
(약 2개월분)

◐ 구입문의 :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 대구여래한방원

如·來 ·治 ·身 ·自 ·然 ·食 ·品 ·會 ·社